

# 기혼여성의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Mediating Effects of Couples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s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men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원 김 향 순\*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팀장 김 순 덕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원 구 명 이

Hwaseong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Counselor* Kim, Hyang Soon  
Hwaseong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Counselor* Kim, Soon Duck  
Hwaseong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Counselor* Goo, Myoung Yi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couple communication on self-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men. The ANOVA, correlation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those variables. The results revealed that self-differentia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Also, couple communication was revealed to be a partial and full mediator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marital

\* 주저자, 교신저자: 김향순(hyang620@hanmail.net)

satisfac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couple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socio-economic variables such as educational level, occupation, family income, and the years of married life. Educational level and family income made differences in couple's communication. However, socio-economic variables did not make any difference with regard to self-differentiation.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all sub-factors for self-differentiation, whole self-differentiation, married couples'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Third, the result shows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couple communication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Couple communication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vs. emotional function, family projection, emotional cutoff, and marital satisfaction. It also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g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addition, there was a tendency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self-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self-differentiation and couples communication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hen explaining marit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men. Also, the results implied the importance of the increased self-differentiation and the better couple communication in women's marital satisfaction.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ed the necessity of counseling services to enhance the self-differentiation as well as couple communication programs for the marital satisfaction of women.

Key Words : Self-differentiation(자아분화), marital satisfaction(결혼만족),  
couple communication(부부의사소통)

## I. 서론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개인의 행복추구와 평등주의 가치관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부부관계는 제도적인 규범적 관계에서 정서적 관계를 추구하는 관계로 변화되었다. 그에 따라 부부의 정서적 친밀감과 결혼만족이 결혼생활의 안정을 좌우할 정도로 중시되어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부들은 위기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높으며(통계청, 2011),

이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이혼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혼당사자들은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좌절감 및 우울 등과 같은 심한 정서적 문제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최규련, 1993). 많은 부부치료 연구자와 임상가들은 결혼만족이 부부 상호간의 정서적 구조 등 부부개인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녀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자녀들의 장래 결혼생활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백경숙, 2011; 이경화·김경혜, 2006).

그에 따라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부부교육 프로그램과 부부상담의 필요성이 많아지고 있고, 이혼 후 적응을 위한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가 필요해졌으며, 최근에는 특히 남성보다 여성들의 이혼청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해 졌다.

결혼만족에 대한 초기 연구는 사회인구학적변인(김화자, 1990; 안소영, 1990; 정병철, 1991)에 따른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그 후 개인의 심리내적 특성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송정아, 1995; 최규련, 1993 재인용) 및 의사소통 같은 부부 상호작용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강기연, 2000; 김요한, 2009; 조유리, 2000).

한편 개인 심리내적인 특성인 자아분화와 결혼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분화가 낮은 경우 자신의 불행이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여 부부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미숙한 행동을 하는 반면 자아분화가 잘 된 사람은 안정되어 있어서 배우자의 감정에 대해 공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 불평도 적고 긍정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한다(김경자, 2004).

따라서 자아분화가 잘 된 사람은 부부간의 친밀감이 높으며,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정혜·채규만, 1998; 유희남·김영희 2011; Patton & Waring, 1984).

또한 부부 상호작용 변인인 의사소통은 결혼만족의 중요한 변인이며(장하용·김지애, 2009; 유옥, 2010), 의사소통이 원활할 때 부부갈등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이유진, 2012), 친밀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고 한다(김명희·최연실, 2007).

한편 Bowen과 Satir 같은 가족상담자들은 임상에서 자아분화가 부부의사소통을 매개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여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부부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부부의사소통이 원활한 결과 결혼만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부부의 자아분화가 낮은 경우 부부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이고, 이에 따라 결혼갈등이 많아지고 갈등해결을 못하여 결혼만족이 낮아지는 사례를 보고하였다(최규련, 2013 재인용).

그러므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의사소통이 어떤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국내의 실증적 연구는 김정숙(2009)의 연구 한편 밖에 밝혀내지 못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미혜, 2011), 대학생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해인, 2012), 그리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오현주 외3인, 2012) 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분석할 목적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혼여성의 자아분화, 결혼만족, 부부의사소통은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라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기혼여성의 자아분화, 결혼만족, 부부의사소통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기혼여성의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자아분화와 결혼만족과의 관계

최근 들어 많은 부부들이 부부 중심의 평등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관계를 유지하는데 부부 상호간에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통한 만족에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혼만족은 부부의 상호작용을 통

해서 한 개인이 인식하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의 일치 정도라 할 수 있다(김대영, 이은희, 2011; 2007; Rice, 1979). 부부상담가들은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실제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을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으로 이라고 한다.

Bowen(1978)은 가족체계 이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으로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이 결혼 만족이 높다고 하였다. 자아분화는 개인의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타인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능력으로써 원가족으로부터 개별화된 정도를 의미한다(한영숙, 2007; Bowen, 1978).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은 독립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생활하며, 갈등에 직면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이는 충동적인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사고와 감정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성적, 자율적,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영숙, 2007; Bowen, 1978).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부부관계에서도 각자의 정체감을 잃지 않고, 갈등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긍정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한영숙, 2007; 김남진, 2005; 고현선, 1994; 전미영, 1992; Skwron & Friedlander, 1998). 즉, 개인의 자아분화는 부부 갈등의 정도를 낮추고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감정과 사고의 구별이 어렵고 객관적인 사고 기능이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자기 자신과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있어, 불안수준이 높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독립적으로 명확하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김병화, 2013). 이와 같이 부부가 갈등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이 확고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고 감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지적 추리와 독립적 목표지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의존적이고 긴장이나 갈등을 야기시키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조은경·정혜정, 2002; 한영숙, 2007; Bowen, 1978). 따라서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결혼생활에서 스트레스와 갈등을 많이 경험하여 부부간에 우울이나 불안 등 여러 가지 역기능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금운순, 1996; 김남진, 2005; Bowen, 1978). 특히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감정반응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타인의 압력에 쉽게 흔들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까봐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단절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며, 또한 타인과의 융합정도가 클수록, 결혼만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미·고영건, 2009).

아울러 남편에 비해서 아내는 관계 지향적 특성이 발달되어 어린 시절 성장하는 동안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은 경험이 남편과의 관계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부모와의 부정적인 경험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이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기혼여성의 원가족 경험으로부터 얼마나 자아분화를 하였느냐에 따른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2. 자아분화와 부부의사소통과의 관계

부부 의사소통은 상호작용하는 관계 지향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다. Satir(1974)는 자율적이며 원가족과 정서적 단절 없이 연결감과 유대감을 가지는 경우 자존감이 높고 기능적 의사소통을 하지만,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단절되고 분화되지 않아 자존감이 낮은 경우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한다(최규련, 2013 재인용). 이를 정서체계 측면으로 설명하면,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은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줄 알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활하게 부부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반면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부부간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과 견해에 따라 이성적으로 의사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과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심리내적으로는 정서적 거리를 좁히고 안정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으며, 이를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의존하여 충족시키려는 기대를 갖게 된다. 이러한 기대는 부부간에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져,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자아분화에서 정서적 융합은 갈등을 표면화하거나 정서적 단절로 이어져 부부의사소통의 단절을 일으키는 중요한 저해요인이다.

또한 부부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보다는 제 삼자와의 관계를 형성하여 그 불안을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원가족으로부터 자아분화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원활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며, 이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서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영향을 받는다(이지민, 2013). 아울러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반면, 자아분화가 낮을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주제 선택에 소극적인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김미정, 2011).

### 3.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과의 관계

부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개개인의 가족구성원과 가족 전체, 더 나아가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열쇠가 되며, 부부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감소시키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등 건강한 부부관계의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되어 왔다(박지은, 2011; 조유리, 2001; 하상희, 2007). 행복한 부부는 부부간에 분명하고 개방적이며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김소영, 2003; 박민지, 2006, Kim & Choi, 2007),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부부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반면,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부부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단절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화자, 1990).

실제로 결혼만족이 높은 부부일수록 서로간의 의사소통에서 의견일치의 빈도가 높고, 부부간 삶의 목표가 명확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덜 주고 받으며, 사회적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랑과 애정표현의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공성숙, 2006). 뿐만 아니라 부부간 대화에서 긍정적인 표현이 많을수록 결혼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 항상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고 있어, 부부가 갈등을 경험하더라도 긍정적이고, 언어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도미향·최외선, 1990).

그러나 결혼만족이 낮은 부부일수록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신의 감정표현을 직접 나타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모호하게 나타내어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화 자체를 회피하는 태도나 비난, 비판, 불평, 경멸, 방어 및 냉담 등과 같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강해순, 2011; 최규련, 2008; 황중귀, 2009; Coleman, 1984; Revenstorf, et al, 1980; Ting Toomey, 1983).

부부 의사소통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에 대한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은 친밀성과 관련된 영역에서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차선, 2006; 김정자 외 7인, 1988; 김희진, 2004;

장은경, 2001; Kim & Choi, 2007). 즉, 부부의 의사소통은 여성의 결혼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유옥, 2010; 고정애, 2004; 이종선, 2001; 장하용·김지애, 2009), 이에 대한 연구는 시대를 막론하고 필요성을 시사 하여왔다.

#### 4.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부부 의사소통은 부부 각자의 심리내적 요인인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정숙, 2009). 이와 유사한 연구로 자아분화가 부부의사소통이 부부의 성적 친밀감을 높인다는 연구(정현숙, 2009)와, 가부장적 태도와 노년기 결혼만족과의 관계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고미혜, 2011), 그리고 성장기 부모화 경험과 낭만애착의 관계에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정해인, 2012), 회피애착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오현주 외3인, 2012)들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부부들이 함께 보내는 기간이 길어졌으며, 어느 때보다도 부부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중요시 되어 결혼생활에 대한 안정성과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5. 자아분화 결혼만족, 부부의사소통의 사회인구학적변인

사회 인구학적 관련변인을 자아분화, 결혼만족, 부부의사소통과의 관계대한 연구에서 대부분 연령, 학력, 결혼기간, 취업에 따라 관련성이 있었

다(김수연, 2001; 김은주, 1979; 박수선, 1996; 박은희, 2011). 즉, 연령이 낮을수록 자아분화가 높으며, 부부간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결혼생활에 적응을 잘하며,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현선, 1994; 김병화, 2013; 박수선, 1996; 박은희, 2011).

사회인구학적변인중 학력은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부부는 의사소통 기술을 발전시켜 서로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사고와 감정을 분리하여 부부가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문제해결 능력을 증가 시키고, 서로가 애정을 표현함으로써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김수연, 2001; 김은주, 1979; 박수선, 1996; 박은희, 2011).

많은 부부들은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반면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만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구혜진, 2002; 김진분, 2006, 박경숙, 2009; Lewis & Spanier, 1979).

아울러 취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취업 집단이 비 취업집단보다 자아분화가 높았으며,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을 하는 경우와 남편의 지지와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체로 결혼만족이 높았다(김수연, 2001; 이은희, 2002). 반면, 비 취업집단이 취업집단 보다 결혼만족이 높다고 하는 상반된 결과도 있었으며(김병화, 2013; 조유리, 2000), 부부간 의사소통은 비 취업 집단이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취업집단은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은주, 1979; 장하용·김지애, 2009).

이와 같이 상반된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 여성이 취업을 했어도 가족 내에서 역할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여성의 책임과 노력이 가중되어 역할갈등을 일으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부의 갈등은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엄격하고 경직된 역할은 악순환의 고

리가 되거나 정서적 단절과 부부친밀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결혼만족은 경제적 수준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월수입이 많은 부부일수록 결혼생활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부간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남편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아내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은희, 2002).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경기도 남부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으로 자료 수집은 2014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경기도 남부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부모, 상담실을 이용하는 내담자, 상담관련 공부를 하는 기혼여성을 눈덩이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된 478부 중 불성실하게 기입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41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바와 같이 연구대상은 40대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 30대, 50대 이상의 차례로 많았고 20대가 가장 적었다. 학력은 전문대졸이나 대학중퇴가 많았고 그 다음 대졸, 고졸 이하의 차례로 많았으며 대학원졸업 이상은 가장 적었다. 취업한 집단은 비 취업한 집단보다 많았으며, 가족전체 월수입은 500만 원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순이었으며, 300만원~400만원 미만은 가장 적었다.

결혼기간은 15년이상에서~20년미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15년미만, 5년미만, 20년이상~25년미만, 25년이상 순이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가장 많았고, 자녀수는 2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명, 3명 순이었으며, 3명과 4명 이상의 집단도 포함되었다.

#### 2. 조사도구

##### 1) 자아분화

본 연구에서 자아분화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owen의 이론을 토대로 제석봉(1989)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6개 문항 중 신뢰도 계수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고 33개의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아분화의 하위척도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등의 5개의 영역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 척도의 점수를 합산한 것이 전체 자아분화를 나타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지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잘 분화되어 있으며, 자아통합 수준이 높고,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 퇴행 수준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 ) 계수는 .87이었으며, 각 문항과 요인별 Cronbach's  $\alpha$  계수는 <표 2>와 같다.

##### 2) 결혼만족

Marital Satisfaction Scal(MSS)을 최규련(1993)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며, 평소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자기평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6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412)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21	5.1
	30대	164	39.8
	40대	165	40.0
	50대 이상	62	21.3
학력	고졸 이하	93	22.6
	전문대졸, 대학중퇴	128	31.3
	대졸	121	29.4
	대학원졸 이상	70	17
취업유무	취업	296	71.8
	미취업	116	28.2
가족전체 월수입	200만원 미만	91	22.1
	200~300만원 미만	69	16.7
	300~400만원 미만	57	13.8
	400~500만원 미만	76	18.4
	500만 원 이상	119	28.9
결혼기간	1년미만	4	1
	1년이상~5년미만	58	14.1
	5년이상~10년미만	80	19.4
	10년이상~15년미만	74	18
	15년이상~20년미만	83	20.1
	20년이상~25년미만	61	14.8
가족형태	25년이상	52	12.6
	핵가족	352	85.4
	확대가족	54	13.1
자녀수	기타	6	1.5
	0명	33	8
	1명	84	20.4
	2명	243	59
	3명	42	10.2
	4명	8	1.9
	5명	2	0.5



〈표 2〉 자아분화 척도의 문항 및 신뢰도 계수

하위척도	해당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1*, 2*, 4*, 5*, 6*, 7*	6	.74
자아의 통합	8, 9, 10, 12*, 13	5	.51
가족투사	14*, 15*, 16*, 17*, 18*, 19*	6	.83
정서적 단절	21*, 22*, 23*, 24*, 25*	5	.83
가족퇴행	26~32, 33*, 34*, 35*, 36*	11	.88
*역채점 문항			

### 3. 자료 분석

첫째, 사회인구학적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그리고 자아분화, 결혼만족, 부부의사소통의 사회인구학적변인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둘째, 자아분화, 결혼만족, 부부의사소통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세 가지 단계의 접근모델에 근거하여 단계별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사회인구학적변인별 자아분화, 결혼만족, 부부의사소통 차이

사회인구학적변인별 자아분화, 결혼만족 및 부부의사소통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아분화를 제외한 결혼만족과 부부의사소통에서 차이를 보였다.

### 1) 사회인구학적변인별 결혼만족의 차이

사회인구학적변인별, 결혼만족의 차이는 가족형태와 자녀수를 제외한 학력( $F=2.78, *p<.05$ ), 취업유무( $t=2.04, ***p<.001$ ), 가족전체월수입( $F=5.27, ***p<.001$ ), 결혼기간( $F=4.27, ***p<.001$ )에 따라 결혼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대졸 및 대학중퇴를 제외한 집단과 취업자 집단, 가족전체 월수입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집단, 결혼기간 5년 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결혼만족이 더 높았다 <표 3>.

### 2) 사회인구학적변인별 부부의사소통의 차이

사회인구학적변인별 학력( $F=2.91, *p<.05$ )과 가족전체월수입( $F=5.33, ***p<.001$ )에 따라 부부의사소통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원졸 이상이 다른 학력보다 부부의사소통을 잘하고, 가족전체 월수입에서는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부부의사소통을 가장 잘하며,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순으로 부부의사소통을 잘하며 300만원 미만이 부부의사소통을 가장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취업유무, 결혼기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4>.

### 2. 자아분화, 결혼만족, 부부의사소통간의 관계

자아분화, 결혼만족, 부부의사소통은 각각 유

〈표 3〉 사회인구학적변인별 결혼만족의 차이

(N=412)					
항목	구분	N	M(SD)	t(F)	Duncan
학력	고졸 이하	93	87.41(16.80)	2.78*	B
	전문대졸, 대학중퇴	128	82.13(19.59)		A
	대졸	121	87.61(16.11)		B
	대학원졸	70	87.01(16.11)		B
취업 유무	취업	293	86.84(16.98)	2.04***	
	미취업	116	83.00(17.96)		
가족 전체 월수입	200만원 미만	91	81.60(16.07)	5.27***	B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69	90.07(15.8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7	84.54(18.22)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76	91.45(15.90)		
	500만원 이상	119	83.39(19.26)		
결혼 기간	5년 미만	62	77.96(20.96)	4.27***	
	5년 이상~ 10년 미만	80	84.39(19.81)		B
	10년 이상~ 15년 미만	74	87.47(16.49)		B
	15년 이상~ 20년 미만	83	88.23(14.47)		B
	20년 이상~ 25년 미만	61	90.70(15.12)		B
	25년 이상	52	64.98(13.42)	B	

\*p<.05, \*\*\*p<.001

〈표 4〉 사회인구학적변인별 부부의사소통의 차이

(N=412)					
항목	구분	N	M(SD)	t(F)	Duncan
학력	고졸 이하	93	3.64(.52)	2.91*	A
	전문대졸, 대학중퇴	128	3.50(.51)		A
	대졸	121	3.65(.52)		A
	대학원졸	70	3.69(.47)		B
가족전체월 수입	200만원 미만	91	3.43(.51)	5.33***	A
	200만원 이상~300만원미만	69	3.54(.52)		A
	300만원 이상~400만원미만	57	3.60(.55)		B
	400만원 이상~500만원미만	76	3.76(.46)		C
	500만원 이상	119	3.61(.51)		B

\*p<.05, \*\*\*p<.001

의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 자아분화( $r=.33$ )와 4개 하위영역은 ( $r=.15$ ,  $r=.12$ ,  $r=.16$ ,  $r=.16$ ,  $r=.33$ ) 결혼만족과 각각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중 자아통합을 제외한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 $r=.37$ ), 가족투사( $r=.27$ ), 정서적 단절( $r=.29$ ), 가족퇴행( $r=.33$ )영역과 전체 자아분화( $r=.43$ )는 부부

<표 5> 자아분화, 결혼만족, 부부의사소통 간의 상관관계(N=412)

	1	2	3	4	5	6	7	8
1.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분화								
2. 자아의 통합	-.24***							
3. 가족투사	.39***	.01						
4. 정서적 단절	.27***	-.16***	.39***					
5. 가족퇴행	.24***	.23***	.27***	.43***				
6. 전체 자아분화	.50***	.22***	.62***	.67***	.86***			
결혼만족								
7. 결혼만족	.15***	.12**	.16***	.16***	.33***	.33***	.55***	
부부 의사소통								
8. 부부의사소통	.37***	.01	.27***	.29***	.33***	.43***		

\*\*p<.01, \*\*\*p<.001

의사소통과 각각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 $r=.55$ )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로써 자아분화, 결혼만족, 부부의사소통은 각각 유의하게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자아분화와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부부 의사소통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3단계 접근모델을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 의사소통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자아분화가 매개변인인 부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자아분화가 종속변인인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자아분화와 매개변인인 부부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후,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와, 부부 의사소통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부분 매개) 사라지는지(완전매개)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결과 <표 6>과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자아분화 하위영역 중 인지적 기능 대 정서기능,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등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1단계와 2단계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고, 3단계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인지적 기능 대 정서기능,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등의 자아분화 하위영역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부의사소통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아분화 하위영역 중 가족퇴행 및 전체 자아분화가 결혼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1단계와 2단계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고, 3단계에 전체 자아분화와 결혼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 V. 논의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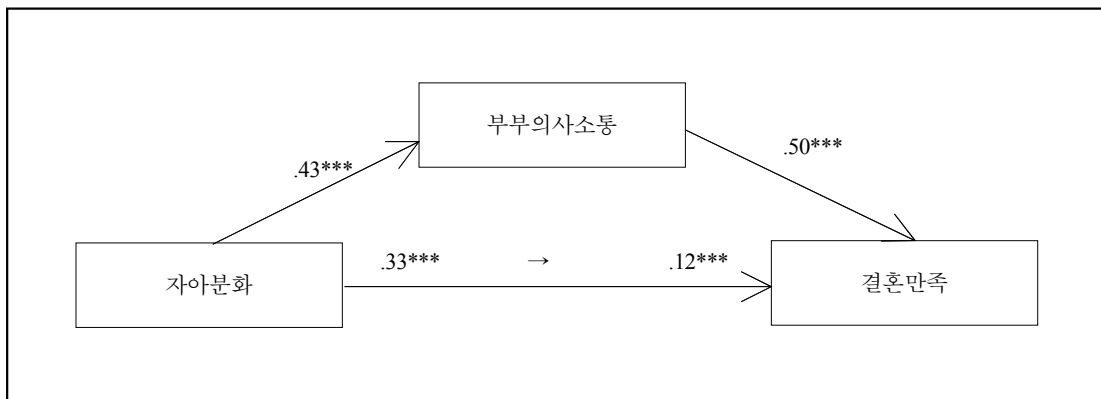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조사 분석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N=412)

	1단계	2단계	3단계
	부부의사소통	결혼만족	결혼만족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부부의사소통	.25***	.15**	-.06
R <sup>2</sup>	.14	.02	.31
F	64.62***	9.17**	90.44***
가족투사 부부의사소통	.27***	.16***	.01
R <sup>2</sup>	.07	.03	.30
F	32.73***	10.57***	88.98***
정서적 단절 부부의사소통	.29***	.16***	-.00
R <sup>2</sup>	.09	.03	.30
F	38.67***	10.81***	88.94***
가족퇴행 부부의사소통	.33***	.33**	.17***
R <sup>2</sup>	.16	.11	.33
F	49.31***	50.45***	100.05***
전체 자아분화 부부의사소통	.43***	.33***	.12**
R <sup>2</sup>	.18	.11	.31
F	92.39***	50.93***	93.88***

\*\*p<.01, \*\*\*p<.001



\*\*p<.01, \*\*\*p<.001

〈그림 1〉 자아분화와 결혼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모형

첫째,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결혼만족, 부부의사소통의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아분화를 제외한 결혼만족과 부부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현선(1994)은 사회인구학적변인이 자아분화에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선행연구에서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고현선, 1994; 김병화, 2013; 박수선, 1996; 박은희, 2011).

결혼만족은 사회인구학적변인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족형태와 자녀수를 제외한 학력, 취업유무, 가족전체 월수입,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문대졸 및 대학중퇴를 제외한 집단과 취업집단, 가족전체 월수입 200만 원 이상~300만원 미만과 400만 원 이상~500만원 미만, 결혼기간 5년 이상이 그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결혼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김수연, 박태영, 2001), 취업집단이 비 취업집단(임유진, 2007)보다 가족전체 월수입이 높을수록(이은희, 2002) 결혼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반면 대부분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결혼만족이 높다고 하는 선행연구(강옥례, 2003; 김수연, 2001; 장은경, 2001; 최은경, 2008)와는 일치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만족에 사회인구학적변인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 하였으며, 특히 결혼기간이 길수록 결혼만족이 높다는 결과는 다른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본 연구를 뒷받침할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었지만 결혼기간은 결혼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의사소통은 사회인구학적변인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학력과 가족전체 월수입에서만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즉, 대학원졸과 400만 원 이상~500만 원 이상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부부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으로 박선민(2004)과 윤수란(2013)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둘째, 기혼여성의 자아분화, 결혼만족 및 부부의사소통은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분화와 결혼만족간의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자아분화와 자아분화의 하위변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은 결혼만족과 상관관계 보였다. 또한 자아분화 부부의사소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중 자아통합을 제외한 자아분화 하위변인과 전체 자아분화와 부부의사소통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선행연구들(김남진, 2005; 박지영, 2010; 이명옥·하정희, 2007; 전춘애·박성연 1994; 한영숙, 2007)과 자아분화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선행연구(김미정, 2011; 정현숙, 2009)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은 부부관계 유지의 중요 요인이 되는 결혼안정성과 결혼만족에 부부가 서로 구속하지 않고 배우자와 불일치를 인정하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며, 자신의 감정을 개방하며 원활하게 소통하며, 결혼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화가 잘된 사람은 지적체계와 정서적 체계가 분화되어있고, 성숙한 사고가 발달되어 본능적 충동의 지배를 덜 받으며, 부부의 문제를 자녀에게 투사하지 않고, 부부갈등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단절하지 않으며,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위기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재석봉, 1989).

그러나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중 자아통합은 부부의사소통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아통합이란 관계체계 또는 타인이나 상황으로부터 정서적인 압력을 받을 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율성과 독립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원가족에서 형성된 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자녀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재석봉, 1989). 어린 시절 부모-자녀관계에서 인식한 가족의 건강성이나 부

모님의 부부갈등, 부모자녀 삼각관계 등 핵가족 관계보다 원가족 경험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가족 경험이 결혼이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관계경험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하상희, 조소희, 2008). 이에 전통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는 위계적인 관계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없는 문화로 자아통합과 부부의사소통은 표면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개인의 심리내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기혼여성의 심리내적인 문제, 원가족 경험이 자아분화와 부부의사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대부분 나타났다. 부부의사소통은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중 자아통합을 제외한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영역 각각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숙(2009)의 부부의 자아분화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며, 남편의 의사소통은 자신과 부인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중 가족퇴행과 전체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의사소통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중 가족퇴행과 전체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부의사소통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부부의 자아분화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부갈등대처 행동을 통해 의사소통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김정숙(2009)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부부의사소통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

분화가 높지 않더라도 결혼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부상담 및 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과 부부의사소통이 사회인구학적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관계 개선과 가족해체 예방을 위하여 기혼여성의 사회인구학적배경별로 특성화 하여, 교육 및 상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가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려 하였으나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이에 자신의 욕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한국적인 문화 때문인지, 아니면, 부부관계로 한정하여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한계점인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사회인구학적변인이 자화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상의 범위를 넓혀서 부모자녀-관계, 원가족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등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밝혀진 결과를 통해 자아분화를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자아분화가 높지 않더라도 결혼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간 의사소통의 기술 및 훈련을 통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단체와 사회복지기관 및 상담센터에서 부부상담 및 부부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실제로 Bowen의 가족치료이론의 핵심 목표는 자아분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분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계도 분석을 통한 원가족에서 세대로 전수된 행동패턴이 있는지, 어린 시절 미 해결과제가 현재 핵가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불안요인을 찾아서 불안수준을 낮추는 일등이 포함되는데, 예방차원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치료차원의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많은 기관에서 의사소통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회성이나 단발성으로 진행되고 있어, 장·단기적인 프로그램의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강기연(2000).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인지의사 결정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사무직, 관라전문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강차선(2006). 부부의사소통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강옥례(2003). 맞벌이 부부의 가족 내구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포항시 지역 맞벌이 남녀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강해순(2011). 부부간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벤처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고미혜(2011). 가부장적 태도 노년기 결혼만족도와 관계: 효율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고정애(2004). 기혼여성의 성만족 및 일반적인 사소통과 성관련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고현선(1994). 부부의 자아분화가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공성숙(2006). 일반 부부와 부부클리닉 방문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5(4), 434-445.
- 9) 구혜진(2002). 맞벌이 부부의 역할 강등과 부부의사소통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권정혜·채규만(1998).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98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5-51.
- 11) 금운순(1996). 자아분화수준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김경자(2004).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김남진(2005). 자아분화수준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김대영(2007). Satir의 의사소통유형, 자아존중감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김명희·최연실(2007).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1-23.
- 16) 김미정(2011).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의 관계. 국제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김병화(2013). 부부의 자아분화가 가족분화와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8) 김소영(2003). 개인특성 및 의사소통에 따른 부부 적응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김수연(2001).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 김요한(2009). 근거이론을 적용한 이혼소송과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1(2), 559-583.
- 21) 김은주(1979). 도시부인의 직업 및 가정생활에 대한 일고찰.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김정숙(2009). 부부의 자아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갈등 대처행동, 의사소통유형의 매개효과와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

-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김정자·김경연·김성희·정영숙·심혜숙·최원철·최순·문소정(1988). 한국 기혼여성의 일상적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I). 대한가정학회지, 36(12), 87-104.
  - 24) 김진분(2006). 군인부부의 의사소통과 직업만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김화자(1990).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국민학교, 중, 고등, 대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김희진(2004).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7) 도미향·최외선(1990).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응과 부부간 의사소통양식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69-85.
  - 28) 박경숙(2009). 어머니의 의사소통을 통해 본원가족의 가족규칙과 부부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9) 박민지(2006).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분화수준과 가족규칙 및 부부의사소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박선민(2004). 부부의 자아 존중감과 가족규칙의 정도에 따른 가족의사소통 효율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1) 박수선(1996).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아분화수준과 결혼만족도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2) 박은희(2011). 부부의 자아분화가 갈등대처방식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박지영(2010). 자아분화가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해결양식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4) 박지은(2011). 부부의 자기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대처방식에 관한 배우자 의사소통의 영향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박태영(2001). 발달장애아동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7, 113-137.
  - 36) 백경숙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와 결혼만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2), 181-198.
  - 37) 송정아(1995). 중년기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3), 113-133.
  - 38) 안소영(1990).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분석: 강릉지역을 대상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9) 오현주·최승미·조현·권경혜(2012). 회피에착이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및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 20(3), 525-546.
  - 40) 유옥(2010). 결혼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한 신혼기 부부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1) 유희남·김영희(2011).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대처행동 및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141-158.
  - 42) 윤수란(2013). 한국 기혼자의 기본 심리욕구 충족과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3) 이경화·김경혜(2006). 중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자녀양육태도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방과후 아동지도연구, 3(1), 77-88.



- 44) 이명옥·하정희(2007). 자아분화와 결혼적응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2(4), 519-535.
- 45) 이소미·고영건(2009). 자아분화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효과: 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8(3), 643-658.
- 46) 이유진(2012). 기혼여성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 원활성, 부부갈등 긍정적 대처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7) 이은희(2011).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실제 간의 차이와 부부간 의사소통이 결혼초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8) 이종선(2001). 부부의 개인특성, 의사소통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9) 이지민(2013). 20~30대 기혼여성의 원가족 분화경험, 부부의사소통 및 부부친밀감이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6), 23-38.
- 50) 임유진(2007). 원가족부모와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이 신혼기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1) 장은경(2001).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2) 장하용·김지애(2009). 주부의 성격과 스트레스가 가족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peech & Communication*, 11, 124-156.
- 53) 전미영(1992). 중환자의 정서적 반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4) 전춘애·박성연(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4), 117-133.
- 55) 정병철(1991).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6) 정해인(2012).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낭만 애착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7) 정현숙(2009).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의사소통 및 성적 친밀감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8)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9) 조소희(2008).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가 핵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0)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1) 조은경. 장혜정(2002).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대처 행동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6.
- 62) 최규련(1993). 한국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3) \_\_\_\_\_(2008).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부부 대화법. 서울 : 신정.
- 64) \_\_\_\_\_(2013). 협동적 결혼기술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 (2), 3-21.
- 65) 최은경(2008). 기혼여성의 배우자 선택방법에 의한 결혼만족도.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6) 하상희(2007). 부모와 자녀세대의 원가족 건강성이 대학생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2), 115-132.
- 67) 한영숙(2007).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59-272.
- 68) 허운정(1997). 부부관계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연구: 의사소통과 갈등해결방식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9) 황중귀(2009).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8(4), 825-840.
- 70) 통계청(2011). 이혼통계조사. 통계청.
- 71)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72) Bowen, M.(1978). On the differentiation of self.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Jason Aronson.
- 73) Colman, J. C.(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Indianapolis, Indiana: The Bobbs-Merrill.
- 74) Kim, M. & Choi, Y.(2007). The effects of marital communication and marital intimac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3), 1-23.
- 75) Lewis. R. A. & Spanier, G. B.(1979). The or 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L.W.R, Burr et al,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I.N.Y : Free Press.
- 76) Patton, D. & Waring, E. M.(1984). The quality and quantity of marital intimacy in the marriages of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0(3), 201-206.
- 77) Revenstorf, D. B., Vogel, C. W., Hahlweg, K. & Shindler, L.(1980). Escalation phenomena in interaction sequences: An empirical comparison of distressed and non distressed couples. Behavior Analysis and Modification, 4, 97-115.
- 78) Rice, F. P.(1979).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 Allyne and Bacon.
- 79) Skowron, E. A. & Friedlander, M. I.(1998).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235-246.
- 80) Ting-Toomey, S.(1983). An an analysis of verbal communication patterns in high an low marital adjustment group.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9, 306-319.

- 투 고 일 : 2014년 7월 1일
- 심 사 일 : 2014년 7월 3일
- 심사완료일 : 2014년 8월 5일